GOOD NEWS LETTER

뉴시티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 예수 따르는 성도



8월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세대통합 그룹 —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해요!

누구든,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환영합니다.

PASTOR'S COLUMN

나를 태우는 불, 나를 살리는 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예레미야 20:9)

지난 금요기도회 후에, 한 아이가 설교를 들으며 적은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능'의 그래프입니다. 시작은 높이 올라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래로 떨어지는 곡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불'의 그래프입니다. 시작점에서 출발한 선이 끝까지 꺾이지 않고 곧게 이어집니다. 그날 설교의 핵심이 그 두 개의 그래프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이런 문장들도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재능은 처음의 재료.' '세상의 열정은 나를 태운다.' '망하는 길이 재건하는 길.' '골수에서 말씀이 나온다.' 아이의 글씨로 옮겨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보며, 말씀이 세대를 건너 배달되는 현장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로운 설교자였습니다. 사십 년을 전했지만 환영받지 못했고, 곁에 남은 사람은 바룩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익숙한 해법은 우상숭배와 강대국 의존이었습니다. 늘 하던 방법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 불렀던 바벨론 포로의 길을 '재건하는 길'로 삼으셨습니다.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처음의 재료일 뿐입니다. 재능은 시작하게 하지만, 끝까지 가게 하는 열정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열정 — 인정받으려는 열심, 증명하려는 분투 — 은 아이의 표현 그대로 '나를 태웁니다.' 마음이 타고, 영혼이 타고, 끝내 몸이 탑니다.



아이의 노트에서 — 두 개의 그래프 (다시 그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불은 다릅니다. 그 불은 어떤 위기가 와도 가던 길을 가게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해도 부귀영화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응답이 더디어 인내해야 할 때에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의 근원이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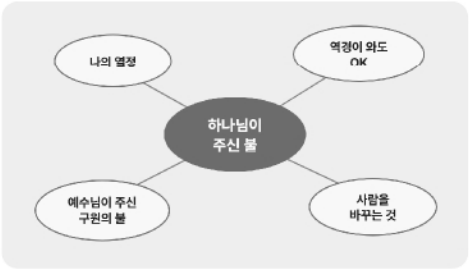
아이의 노트 한쪽에는 이런 관찰도 있었습니다. '요즘 찬양에는 나의 감정이 앞서고, 예수님께 드리는 말이 없다.' 아이도 알아챈 것입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트의 마지막 줄은 이것이었습니다. '골수에서 말씀이 나온다.' 골수는 피를 만드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골수까지 사무칠 때, 거기서 생명의 피가 만들어져 우리를 살립니다. 불은 내 안에서 자연발생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말씀에서 와서 우리 속에 붙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주말을 살린다'고 아이는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의 기도가 주말을 살리고, 주일의 예배가 한 주간을 살립니다. 주께 드린 20이 나의 80을 살립니다.

이번 달, 주일학교 세대통합 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신앙을 배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되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자리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옮겨붙기를 기도합니다.

재능은 시작하게 하지만, 불은 끝까지 걷게 합니다.
세상의 열정은 나를 태우지만, 하나님이 주신 불은 나를 살립니다.



아이가 그린 마인드맵 — '하나님이 주신 불' (다시 그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오목사 드림

ORDER OF WORSHIP

주일 예배 순서

묵도와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양	빛으로 비추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부르신 곳에서	인도자+찬양팀
합심기도		
성경봉독	예레미야 29:4~7, 10~14	이세린/다함께 기립
설교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오종향 목사
결단의침묵		
찬송과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약한 나로 강하게	
헌금		
안내		
축도		
점심친교		
조모임		*방문자/새가족은 오종향 목사와 함께

예배가 처음이신가요?

- 순서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화면과 이 순서지를 따라 편안히 함께해 주세요.
- 헌금은 교인들의 감사 표현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마음의 부담 없이 지나셔도 됩니다.
- 예배 후 점심을 함께 나눕니다. 꼭 함께 드시고 가세요.

SMALL GROUP

소그룹 나눔 (예배 후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1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다" — 오늘 말씀 중 나에게 가장 깊이 배달된 한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2 [감사]

돌아보니 유배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주소지였던 시간이 있었나요? 그 시간이 지금의 나에게 남긴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3 [반응]

주께 드린 20이 80을 살립니다 — 이번 주 하나님께 먼저 드릴 나의 시간·마음의 20(주일·금요예배, 매일 기도의 자리)을 정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29:7)는 말씀 따라 내가 심긴 동네·직장·학교와 태신자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지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

설교 아웃라인 빈칸 정답

① 먼저 ② 번지수 ③ 살라 ④ 보냄받은 ⑤ 평안 ⑥ 실패 ⑦ 기도 ⑧ 20 ⑨ 80 ⑩ 닫힌 ⑪ 반송 ⑫ 뜯지 않은

SCRIPTURE OF THE DAY

오늘의 말씀

대표 낭독자: 이세린 (다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레미야 29:4~7, 10~14 (우리말성경)

4.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5.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6.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7.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10.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11.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12.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13.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14.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다같이: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SERMON OUTLINE

설교 아웃라인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시리즈《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주 · 예레미야 29:4~14

한 문장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전에, 하나님이 (①_____)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다.

1. 유배지로 배달된 편지 (10절)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서 흘러온 자리의 (②_____)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 편지는 "나오라"가 아니라 "거기서 (③_____)"고 말합니다(29:5~7).

유배지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④_____) 땅입니다.

2.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11절)

포로들의 해석은 "버림받음", 하나님의 해석은 "(⑤_____), 미래, 희망"이었습니다.

내 (⑥_____)조차 그분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3. 부르짖으면 들으리라 (12~14절)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⑦_____)의 회선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주께 드린 (⑧___)이 (⑨___)을 살립니다 — 주일예배가 일주일을 살리고, 금요예배가 주말을 살립니다(마 6:33).

기도는 상황이 열린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상황이 (⑩_____) 사람의 무기입니다.

한 줄로 새기기

하나님의 편지는 (⑪_____)된 적이 없습니다. (⑫_____) 편지가 있을 뿐입니다.

SERVING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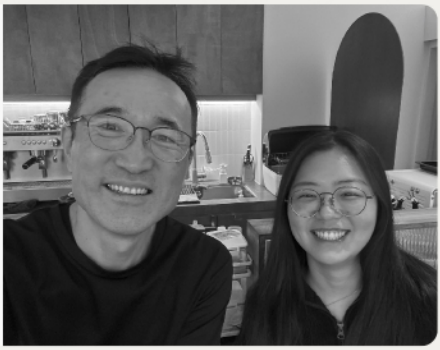
오늘의 섬김과 봉사

- **예배 안내**
  - 이번 주일: 옥진복, 손이숙
  - 다음 주일: 배지은, 유은희
- **성경봉독**
  - 이번 주일: 이세린
  - 다음 주일: 오연총
- **청소정리**
  - 이번 주일: 들풀 조
    (이수민 윤재연 노영숙 유은희 김현지 김영혜 소혜진)
  - 다음 주일: 휴 조
    (은원철 박태원 이성은 이위직 허준)

MISSION

시선오브 이야기





- **시선오브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역 · 장한별 대표)**

  금요일 오후, 자립준비청년들을 돌보는 시선오브를 방문해 과일과 족발을 전했습니다. 과일은 전통시장에서 싱싱한 제품을 저렴하게 준비했고(105,000원), 성도님들의 십일조로 섬긴 것입니다. 족발 한 상자는 오목사가 사비 28,000원으로 시선오브 스태프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선오브는 이번 연휴에도 아이들과 청년들을 만나는 모임을 이어갑니다. 장한별 대표와 시선오브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장한별 대표가 보내온 감사 인사**
  >
  >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선오브의 장한별 청년입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귀한 걸음 해주시고, 과일과 족발까지 한가득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응원해주시며 기도해주시는 그 마음에 참 감사하고, 큰 힘을 얻습니다.
  >
  > 청년들이 평소 과일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청년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사무실에 와 있던 청년들도 먹고 싶었던 과일이라며 무척 좋아했고, 족발도 함께 맛있게 잘 나누어 먹었습니다.
  >
  > 이번 주말과 월요일에도 아이들과 청년들을 만나는 일정이 있는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과 함께 챙겨주신 과일도 감사히 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마음으로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에는 제가 교회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NEWS & EVENTS

교회소식

주일 안내

-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예배 후 점심 함께하는 교제시간이 있습니다.
- 소그룹 모임이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 이번 주일 점심은 문영식 집사님께서 "All about 오리"로 섬겨주십니다.
  고추장 오리볶음, 하얀양념 오리볶음, 훈제 오리, 오리탕
- 8월 한 달 '생명 살리는 교회'를 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8월 예배 안내

- 주일예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리즈
- 금요예배: 해산하는 수고 시리즈
- 8/21 금요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산하는 수고 3, 렘 33:1~3)
- 8/23 주일: 그래도 즐거워하리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 합 2:4; 3:16~19)
- 휴가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며 회복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8월 일정

- 제직회 정기 모임: 8/30 주일 1:15

이 달의 책

-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김형국 저)
- 이 달의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을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참석하기 원하는 분은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가능한 날짜를 맞추기 위해,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목사에게 알려주세요. 줌으로 토요일 오전이나 주일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뉴시티 안내

-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

NEXT GENERATION

주일학교 안내

- **유치부**
  - 유치부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15-12:00
  - 오늘의 말씀: 노아의 방주
- **초등부·청소년부 (주일학교 세대통합 그룹)**
  -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해요!
    8월부터 주일학교 세대통합 그룹이 진행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매주 주제를 가지고 모입니다.
  - 이달의 주제
    1주 차: 학부모 기도회, 마니또&말씀 메이트
    2주 차: 구제&선교 운동
    3주 차: 관계&노방전도 운동
    4주 차: 외부 브라움홀 예배
- **어? 성경이 읽어지네(구약반 마지막 시간)**
  -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
    구약반 12과까지 다 마쳤습니다.



- **함께 섬길 교사를 찾습니다**
  - 주일 오후 1:00-2:30에 새가족 인사, 새신자 성경공부, 청소년 제자훈련, 부부학교, 자녀양육 학교 등 3주·6주 단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소그룹 시간에 유치부·초등 저학년 아이들과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유치부 예배·청소년부 오후 모임의 보조교사를 찾습니다.
  - 문의: 오종향 목사, 최은총 전도사

NEW CITY LIFE

뉴시티 이모저모

● 지난 주, 방문한 사람들

웹판에는 방문하신 분들의 이름을 싣지 않습니다. 반갑게 맞아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 아기자기한 일들



에어컨을 직접 분해해 청소했어요
손수 비용없이 깔끔하게 ^^



4개월만에 만난 김바울 목사님,
10km를 함께 뛰며 나눈 대화



불안했던 예배실 TV, 새 스탠드로 안전하게
38,080원 알뜰 조립 ^^



자모실 문, 손끼임 방지 자바라 교체
이번 주에 조용히 한 일 ^^



음향 콘솔 재배치, 케이블 정리

PEOPLE OF NEW CITY

교회를 섬기는 분들
행복한 제직회 · 2026년 하반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분들입니다. 궁금한 것, 제안하고 싶은 것,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각 팀장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2026년 제직 명단 (임기 1년)**

  권사: 김영혜, 옥진복, 정민재

  집사: 강자은,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혜영, 노영숙, 문영식, 박태원, 배지은, 손이숙, 우문주, 원종욱, 유은희, 은원철, 이수민 (가나다 순)

- **예배 안내위원**

  첫째 주 윤재연, 이수민
  둘째 주 옥진복, 손이숙
  셋째 주 배지은, 유은희
  넷째 주 박민수
  다섯째 주 지원 요망

- **주일학교 섬김**

  유은희 (유치부 교사) · 김화길 (청소년부 지원)

- **소그룹 조장**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김순영, 김현지, 유은희 조장은 새로운 조가 만들어질 때를 준비합니다)

- **섬김의 팀**

  ☐ **환경개선팀** (팀장 강자은 · 김영혜, 우문주)
  예배당과 교회 공간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 **구제전도팀** (팀장 원종욱 · 김영혜, 손이숙, 옥진복, 정민재)
  새가족 초청집회와 연말 이웃 섬김을 준비합니다.

  ☐ **새가족안내팀** (팀장 유은희 · 배지은, 이수민)
  주일마다 환영하고, 새가족과 자리·식사를 함께합니다.

  ☐ **재정팀** (팀장 김재강 · 은원철)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분기·연간 보고합니다.

  ☐ **찬양팀** (팀장 김성배 · 노영숙, 문영식, 은원철, 이성은)
  찬양, 음향, 방송 송출, 미디어를 맡습니다.

  ☐ **자비사역팀** (팀장 김혜영 · 김순영, 김현지, 박태원)
  유니시드, 시선오브·꽃피는 봄날, 쪽방촌 이웃을 섬깁니다.

  준비 중: 중보기도팀, 독서클럽팀, 다음세대교육팀, 소셜미디어팀. 마음이 움직이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FRIDAY WORSHIP

금요예배 순서

저녁 7:30

묵도와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양		최은총 전도사
합심기도		
성경봉독	예레미야 33:1~3	다함께 기립
설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산하는 수고 3)	오종향 목사
찬양과기도		
축도		
개인기도후귀가		



2026년 8월 금요기도회 시리즈

해산하는 수고

매주 금요일 저녁 7:30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8월

8월 7일	내가 너를 알았고 렘 1:4-10
8월 14일	뼛속에 붙는 불 렘 20:7~13
8월 21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렘 33:1~3
8월 28일	(곧 공개됩니다)

FOR YOU

당신을 위한 자리

오늘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교회를 찾으셨거나,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이 자리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복음 한 스푼

말씀은 위로이기 전에 진단입니다.
나의 진짜 상태를 비춰 줍니다.
그 진단을 아는 사람만,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말씀이 드러낸 죄의 비용과 처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면서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성경을 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3:3)

위로가 필요한 당신을 위한 기도

지금 유배지 같은 자리에 계신가요?
실패해서 흘러왔다고 여기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편지는 배달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편지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주보를 손에 든 한 사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버려진 땅이 아니라 보냄받은 땅임을 알게 하시고,
평안과 미래와 소망의 계획을 붙들게 하소서."

뉴시티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WELCOME

방문자 카드

뉴시티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새가족안내팀이 따뜻하게 섬기겠습니다.

절취선

뉴시티교회

작성일: 월 일

이름

방문 동기

예: 지인의 초대, 검색, 지나가다 등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작성해 주신 카드는 예배 후 예배당 입구의 **새가족안내팀**에게 전해 주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기도가 필요하시면 예배 후에
오종향 목사나 새가족안내팀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뉴시티교회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예배 11:00, 금요예배 19:30 서울 서초구 명달로 46 서신아파트상가 2층 교육관, 3층 예배실
www.newcity.or.kr ·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